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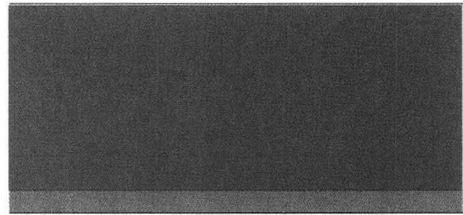
# 만화는 제 힘으로 그 일을 거뜰히 해내고 있다!



《시어머니 죽이기》니카이도 마사히로 지음·권경일 옮김 | 서울문화사 | 172쪽 | 값 3,500원



《로망스》윤태호 지음 | 애니북스 | 222쪽 | 값 7,800원



《아버지와 나》의 겉표지를 넘기면 앞날개에 큼지막한 사진이 한 장 실려 있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옷차림도, 머리 색깔도, 덩수룩하게 기른 수염도, 안경을 쓴 모습도 참 비슷하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는 보수적인 목사 아버지에, 그림과 음악에 빠져 있는 자유로운 아들. 두 사람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반목한다. 일흔이 넘으면서부터 치매로 의심되는 심한 건망증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신다.

어린 눈으로 보기에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아버지, 아버지 키만큼 자라서는 다시는 서로 보지 않을 것처럼 으르렁대며 싸웠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늙고 병들어 당신 딸도 알아보지 못하더니 바지 속에 기저귀를 차야 한다. 미술을 전공한 아들이 직접 그린 그림은 다소 거칠게 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별다른 꾸밈이 없어 담백하게 부자간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그 담백함 때문일까, 작은 네모 속 한 컷 한 컷의 만화가 자주 가슴을 울리며 지나간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나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자식들의 이야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우선 유난히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던 아들의 결코 쉽지 않았을 아버지에 대한 보살핌이 그림의 거친 선만큼이나 투박하게, 그러나 또 그만큼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거기다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미묘한 변화와 관계의 흐름을 만화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를 향한 우리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의 느낌을 결코 효도나 도리라는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한 아들은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왜 아버지와의 거리를 좀더 좁히려 하지 않았던가” 후회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깨닫는다. 자녀가 부모를 거스르는 것은 진정 인생의 한 통과례일까. 울타리를 벗어나 좀더 큰 세계로 나가려는 몸부림 같은 것일까. 등을 돌리고 살던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은, 나이 들수록 자신의 손이 점점 더 아버지 손을 닮아 간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것은 눈으로 보면서 애써 따라하고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이어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인류의 불행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 자식을 선택할 수 없는 것, 결혼 상대는 선택해도 상대방의 식구들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작품은 그야말로 인류 최대의 불행을 테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의 불행을 그려보고자 시작한 것이지만, 어느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싸움이 중심이 돼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죽이기》 작가 후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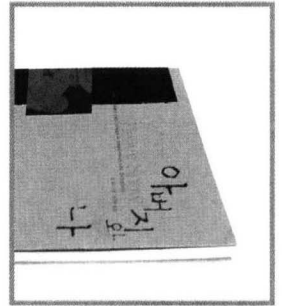
《시어머니 죽이기》는 제목부터 정말 적나라하다 못해 살벌하다. 아들이자 남편은 저 멀리 세네갈에서 근무중이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살고 있다. 사연이야 어찌 됐든 만화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언제나 전쟁중이다. 그것도 티격태격하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처절한 전쟁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무기는 엷어 치기, 매치기에 칼, 바늘, 송곳, 도끼 같은 온갖 도구와 욕조에 빠뜨리기, 벼랑에서 떨어기에 이르기까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저만큼 따돌리고 앞서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에 맞서는 시어머니의 힘 또한 만만치 않아 늘 무승부라는 점이다.

시어머니가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고 “그 옛날처럼 다시 한 번 불타올라 보고 싶구나” 하면, 며느리는 즉각 행동개시. 시어머니 이부자리 주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켜서 들이댄다. 이어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격렬한 몸싸움. 지쳐 나가떨어진 두 사람은 헉헉대며 한 마디씩 한다. “불타오른다는 게 그 뜻이 아니란다”, “어머,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이런 식이다.

고부 이야기 중간 중간에 섞여 있는 만화들 역시 눈길을 끄는데, 하나는 시아버지를 집에서 기르는 개에 비유한 만화이다. 개집에 ‘아버님’이란 문패가 딱하니 붙어 있고, 아버지는 개 목걸이를 한 채 늘 개집에 묶여 있다. ‘개처럼’ 음식을 먹고 산책을 시킨다. 시아버지를 개처럼 대하면서도 며느리는 ‘제겐 소중한 아버님이신걸요’를 반복하고, 개 취급을 받는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넌 역시 착한 며느리구나, 난 정말 행복한 시아버지야’를 되풀이한다. 이 시대에 노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수모인가 하는 것을 그 무엇으로 이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노인요양원의 좋은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 알맞은 운동으로 청년처럼 건강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부양하느라 피를 토하며 일하는 딸의 이야기이다. 아버지는 해골처럼 말라가는 딸의 처지는 아랑곳없이 그저 자신의 건강에만 관심이 있다. 참으로 뻔뻔하고 알밋다. 세계 제일의 장수국가인 일본의 현실은 물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젊은이보다 노인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노인 부양에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 장수사회의 그늘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그려놓아 저절로 무릎을 치게 만든다.

이러니 어찌 만화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고부 갈등의 그 긴 역사와 극한 대립을 네 칸 혹은 여덟 칸 만화에 담아내는 통찰력과



《아버지와 나》 존 휴즈 지음 | 연진희 옮김 | 바다출판사 | 142쪽 | 값 8,500원



사연이야 어찌 됐든 만화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언제나 전쟁중이다. 그것도 티격태격하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처절한 전쟁이다.



이 글을 쓴 유경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시청각교육과를 졸업했으며 7년간 기독교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노인 방송을 통해 노년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이화여대 사회 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과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어르신사랑연구모임' (<http://cafe.daum.net/gerontology>)을 운영하며 노인대학과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꽃 진 저 나무 푸르기도 하여라》가 있다.

감각이 위낙 뛰어나, 제목에서부터 시작된 불편한 심기는 어느새 저만치 사라져 버리고 없다. 고부 갈등이 없는 척, 노인문제에서 자유로운 척하는 것보다 아예 '죽이기'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드러내놓고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 만화는 제 힘으로 그 일을 거뜬히 해내고 있다.

70세 나이에 딸 둘, 아들 하나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와 함께 사는 퇴직 공무원 김이 용 할아버지, 저승사자까지도 잠재우는 대단한 입심의 월남 참전 용사 파랑새 할아버지, '너 누구냐?'며 손자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치매 할아버지, 만능 열쇠로 사람의 몸도 여는(?) 열쇠 할아버지, 거기가 은퇴한 조폭 할아버지까지. 만화《로망스》의 주름 가득한 주인공들은 그 얼굴하며 행동 거지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주책없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밥을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흘리고, 침이 슬쩍 흘러나오고, 변비가 심해 괴롭고, 요실금 때문에 외출할 때는 기저귀부터 차야 하고... 노년기의 신체적인 변화를 어느 누가 막겠는가. 다만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성정도 마찬가지여서, 노년의 성性は 우리 곁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군다. 만화 속 할아버지들은 '늙어 보라'라는 제목처럼, 몸이 예전처럼 따라 주지 않을 뿐 그 욕구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생하게 드러내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하다.

이 책은 한 스포츠신문에 연재했던 만화를 묶은 것인데, 작가가 앞 부분에서 밝혔

듯이 노인을 그린 만화가 젊은 사람들이 주로 보는 스포츠신문에 실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포츠신문이 가지고 있는 선정성에 기대어 성性을 포함한 노년의 삶을 과대포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버지 다리 주물러 드리며 같이 바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작가의 말을 나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었다. 물론 '피식 웃어주면 된다'는 작가의 주문은 넘치도록 실행했지만 말이다.

경로당에서 흑백 바둑돌을 동전 삼아 내기 고스톱을 치고, 휴대폰을 자랑하다가도 막상 벨이 울리면 받을 줄 몰라 벨소리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할아버지들은 착하고 순진하다. 그러나 방 한 구석이나 골목길 끝에 쭈그리고 앉아 일부러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자식들에게 항의하는 나름의 처세방법은 노련하다 못해 노회하다. 어떤 때는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노년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만, 거부감을 덜어주는 것은 역시 만화를 몸으로 입을 덕이다. 이 만화가 좀더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노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조연 아닌 주연의 위치에서 만화 속 할아버지들과 함께 노년의 삶을 꾸려갔더라면 진짜 풍성한 노년 이야기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과제와 이슈를 던져 주고 있는 노년. 만화책 세 권이 노인복지 이론서 몇 권의 내용을 충분히 요약해서 담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노년은 그 어느 먼 곳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함께 이루는 같은 땅, 같은 나라이다. 다만 우리가 노년을 모르기에 두려워하며 똑바로 마주보길 지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화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일을 먼저 시작했다. **☞**